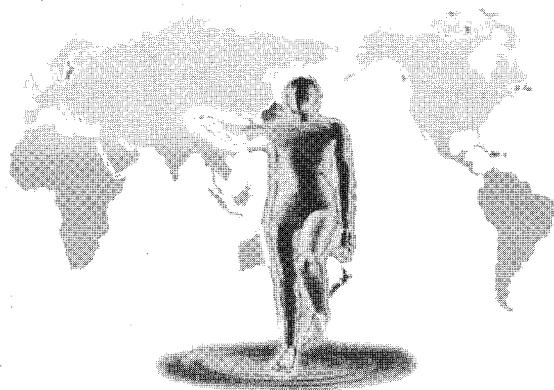


수맥

인체에 미치는 영향



I. 서론

지금까지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상의 조건 즉, 기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일기예보를 통하여 햇볕, 구름, 비, 온도, 풍향 등을 알게되고 이들은 수시로 변화하면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러나, 지하의 조건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어 왔다.

사람은 일생의 1/3을 잠으로 지내는데 이 잠시간에는 인체세포의 80%가 재생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잠자리에 이상이 생기면 불면증, 피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를 미리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면 질병의 예방효과 치료에 많은 보탬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의료비의 절약, 노동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1995년 우리나라의 사망자의 21%인 51,000명이 암으로 사망했는데 1인당 1,000만원씩 지출의료비를 썼다고 치면 년간 5,000억이나 된다. 짚시들은 암 발생율이 1%이하인데(1/21) 그에 준하면 년간 250억으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수맥 방지제품들도 아직은 초창기라서 기준에 크게 뒤지고 소비자 고발 등 문제가 많으나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따라 우열이 가려지고 정상화 될 것이다.

대개의 언론매체에서는 기본적 지식도 없으면서, 흥미거리나 미신 비슷하게 오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상당한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현실은 너무나 무지하고 아전인수격이다.

초보적이나마 수맥방지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II. 수맥 등 유해파의 원리

A. 수맥의 영향

1. 수심이 깊으면 영향은 더욱 강하다. (고산지대 아파트)
2. 고층건물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다. (1,000m 상공에도)
3.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차이가 난다. (Pushing & Pulling)

역류(발 → 머리쪽) - 두뇌 피의 흐름에 장애(중풍), 악몽, 우울, 자살(강)

순류(머리 → 발쪽) - 의식장애, 현기증, 균형상실(약)

4. 물의 수량, 속도
5. 수맥의 양쪽 경계면(Lonic Wall)이 강하다.
6. 흐르는 강물, 도량, 보이커의 배관수 등은 무관하다.
7. 사고 다발지역은 유해파가 강한 곳이다.
8. 짚시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일반인 30%, 짚시 1%이하)
9. 수맥이 한줄기이면 방지되나 겹치는 곳은(Cross) 무조건 피하라.

B. 탐사방법

1. 다 우 징 : Pendulum, L-rod, Aura meter, Swing rod
2. 전기탐사 : 비저항(2,500만원), 음향수나식(3,000만원)

C. 다우징의 원리

1. 감지와 표현(Sensing and Display)
 - 인당혈자리에서 감지한다.(뇌내 자서)
 - 뇌속에서 분석 판단 지시한다.(송과선, 뇌하수체 옆의 관뇌작용)
 - 반응은 근육의 진동으로 손, 발, 인당, 명치에서 나타난다.
2. 수맥과 체질
 - 민감한 체질 30%, 안타는 체질 70% 정도
 - 못 느끼더라도 인체에 영향은 마찬가지이다.(감기와 냄새)
3. 감지센서의 마비와 차폐의 오판

마비 - 자석(인당), 손목에 전선(1.5m), 안테나(머리에), 가죽장갑, 기제품, 도형

D. 방사파의 성분과 작용

- 지하의 마그마로부터 방사되는 r선, x선 또는 유사한 미지의 에너지 파동으로 70%는 전자파와 유사하나 30%는 특이하다. 즉, 전자파의 완전차폐되지만 수맥은 100%되지 않으며 지상 1,000m 까지도 영향이 있다.
- 작용 : 문자레벨의 진동파로 현상을 물질에 일으켜 파괴시킨다.

Vibrational Fatigue at a molecular level

예 - 철로의 레일도 수명이 되면 교체한다. 못의 머리부분이 먼저 녹슨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약한 에너지라도 장기간 반복되는 진동을 가하면 파괴된다.

* 물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파괴운동을 계속한다.

E. 생물에 미치는 영향

1. 인체에 영향

GS → Adrenalin → 심장 ↑ 산소 ↑ 혈압 ↑ 근육긴장 → 32Horm면역 ↓

유해파가 넣는 신체부위에 직접 트러블을 일으킨다. 두뇌, 심장, 폐, 위장, 다리 등에 수맥이나 자기맥이 지나면 그곳에 세포들이 이상스핀을 일으켜 병이 생긴다.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도 갈라지는데 연약한 인체야 당연히 심한 피해를 입는다.

2. 동물에 미치는 영향

대개의 가축은 수맥이 싫어서 기피하는 것들(Avoiders)이고 곤충, 고양이, 세균, 개미, 벌 등은 반대로 좋아하는 것들(Seekers)이다. 가축의 질병은 유해파의 영향이 크다.

3. 식물에 미치는 영향

유해파 위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수명이 짧다.

4. 정밀기계도 노이즈 현상을 일으켜 고장이 자주 생긴다.

III. 유해파의 방지

A. 유해파의 종류

지하에서 올라오는 유해파는 당의 혈관과 같은 수맥과 경락에 해당되는 자기맥이 중요하다. 자기 맥에는 커리맥과 하-트만 맥이 있는데 주로 커리맥을 탐사한다. 지상에는 Black Line, Energy Cloud 등이 있다.

Energy drain, Ley Line, Vortex 등 21종의 에너지파동이 존재한다.

유해파가 전혀 없는 안전한 장소는 1/10도 안된다.

B. 수맥 등의 차폐원칙

1. 수맥이나 자기맥이 지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침대 밑에 바퀴를 달아서 잘 때는 이동 한다.
2. 수맥 등이 한 줄기 위에서는 동판 등으로 방지되나, 두개 이상이 겹치는(Crossing) 장소는 안된다.
3. 동판은 아파트의 경우에 매층마다 깔아야 한다. 유효거리 60cm(2ft)
4. 동/넉렐의 이중도금된 동직물은 동판과 효과가 같다.
5. 파동 발진기기는 유해파를 변화시켜 제거한다.

U-Bend, Crystal Catalyst, neutraliger 등

〈유해장소의 영향〉

		GPZ	Relax	Waking	
		유해한 장소	명상	보통때	
		수맥 · 자기맥	수형	일상생활	
대지의 주파수		7.83±a	7.83Hz	7.83Hz	(슈만)
모양					
뇌 활동	뇌파	진동성 α파 (7.83±a) 간섭	α파 7-13Hz	β파 13~30Hz	
	상태	흥분 · 긴장	이완 · 편안	변동	
	출문	Adrenalin	Endorphin	변동	(신장)
신체변화	신진대사율	비정상	18%~60% 저하	정상	
	혈압	↑	↓	정상	
	호흡	↑	↓	정상	
	맥박	↑ 비정상	↓	정상	
증상	잠자리	불면 · 악몽	편안	정상	
	근무 · 학습	부진	향상(집중력)	정상	
	질병	면역력 저하	항상	정상	
	성격	짜증 · 격분 · 과밀	안정	정상	
질병	불면, 피로, 우울증, 입포тен스, 악몽				
	두통, 생리통,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암, 치매, 자살, 중풍, 유산, 기형아				

C. 차폐 효과의 검증

1.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명의 다우저들이 시험재료들을 보이지 않게 가려진 상태에서 차폐되는 감도를 측정한다.
2. 자기가 깔아놓고 될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기가 다우징을 하면 차폐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자기탐사(Auto - Suggestion)라 하며 잘못된 시험방법이다. 상인들이 쓰는 수법이다.
3. 매트의 가장자리에서는 강하게 반응하므로 1m이상의 쪽으로 수액을 충분히 덮을 수 있어야 한다.

IV. 수액방지 동향 및 시장

A. 국내현황

1. 일반인들의 수액에 관한 의식

언론매체를 통하여 단편적인 지식만 있을뿐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의 경우 매층마다 방지매트를 깔아야 하는데(유효거리 60cm) 1층만 깔면 10층까지고 막힌다는 등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다. 신문에 수액방지아파트를 선전하면서 1층에만 동판을 넣었다고 한다. 관련책자도 17권이나 나왔는데 대개가 허황된 논리를 주장하면서 근본원리는 모르고 있는 듯 하다.

2. 방지제품의 사용 실례

수액이나 자기액을 정확히 탐사해야 하는데 다우저들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경우 암이 완치단계에 들어간 환자, 후두통증 환자, 오십견, 신경통, 관절염 등이 호전된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다.

3. 시장규모

- (1) 군소업체 : 아직 시간단계이다. 年 30~50억 정도이다.
- (2) 대기업 : 제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B. 해외현황

수액을 인간이 활용한 역사는 석기시대부터이며 사막지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다.

현대에 와서 연구하는 학회만 해도 역사가 짧지는 않다.

영국 수액학회 : 1933~(64년) 5,000명

미국 수액학회 : 1961~(36년) 30,000명 50개주 지부

일본 수액학회 : 1984~(13년) 1,000명

한국 수액학회 : 1997~(금년에 시작) 300명

◇ 미국에서는 매년 1,000명씩 모여 년차대회를 3일간씩 개최한다.

◇ 독일에서는 1년 매출액이 1억마르크(약 500억원)이나 되며

◇ 본(Bonn) 정부당국은 40만마르크를 뮤니히대학의 배추와 튀니히 두교수에게 연구자금으로 지원하여 다우징의 현실성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것이 뮤니히 연구계획(Munich Project)인데, 1987~89에 실행되었다.

◇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가구, 침대 등을 구입할 때 미리 수액 등을 탐사하여 놓을 자리를 정한 후 들여온다고 한다. 잠자리의 매트외에도 방지기기들의 연구가 활발하다.

◇ 독일의 GTZ사 등 13개국의 건조지대에서 다우징기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탐사장비로 5개국의 사막지대에서 용수개발을 하고 있다.

◇ 스위스의 다우저는 시간당 15만원, 일당 75만원의 봉사료를 받는다.